

탈북 중·고령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부지원 인식에 따른 삶의 만족도

정 순 들
(이화여자대학교)

박 지 혜*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탈북 중·고령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부지원 인식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 50세 이상 탈북자의 거주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층화표집한 215명의 전국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는 3.27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탈북 중·고령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삶의 만족도의 4.6%를, 정부지원 인식은 8.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영역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탈북 중·고령자가 정부정책이 지역사회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 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PTSD가 낮을수록, 북한에서의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첫째, 50대 이상 탈북자가 체감하는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북한 이탈주민지원정책을 실행할 것과 탈북자 자신이 정부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중·고령 탈북자에게 사회적 지지체계를 만들어 주되, 정부와 언론 등 다양한 사적·공적 지원체계들이 탈북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 속에서 사회적 지지를 하도록 탈북자 지원기관들의 중간역할을 제시하였다. 셋째, 탈북 중·고령자의 PTSD에 대한 정확한 사정·치료, 위기개입 및 이들이 고통을 통해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탈북 중·고령자의 건강과 소득보장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포함하여 자신의 건강과 경제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접근을 요청하였다.

주요용어: 탈북 중고령자, 삶의 만족도, 심리사회적 특성, 정부지원 인식

* 교신저자: 박지혜, 이화여자대학교(jihaepark@ewha.ac.kr)

■ 투고일: 2014.1.31 ■ 수정일: 2014.3.14 ■ 게재확정일: 2014.3.25

I. 서론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탄압 등을 이유로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990년대 후반 북한의 심각한 식량위기 이후 더욱 증가하여, 2013년 남한 정착 탈북자 수는 2만 5천명에 달하였다. 이렇듯 증가하는 탈북자에 발맞추어 정부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있을 뿐, 개별 정책 대상에 대한 접근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중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탈북자의 16.3% (통일부, 2012년 12월 말 기준)에 달하며, 2011년 9.5%에 비해서 7%가량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와 학계 차원의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0세 이상 중·고령 북한이탈주민은 퇴직, 건강악화, 역할상실, 사회참여의 감소 등 중년기와 노년기를 거치면서 삶의 위기와 마주치게 되므로(박순미, 2011), 이들의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한 중·고령 북한이탈주민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남한 사회에서의 삶과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앞으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연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의 삶의 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탈북자의 삶에 있어서 심리사회적 특성과 이들에 대한 남한 사회에서의 지원정책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민과 난민에 대한 외국 연구들에서도 이들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삶에 대한 만족도의 관계는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Finnan, 1982; Vries & Heck, 1994; Amit, 2010; Veronese et al., 2012). 국내에서도 탈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적응을 연결시켜 설명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전우택, 2000; 김미령, 2004; 전우택, 2005; 엄태완, 2007; 김미자, 2008; 진미정, 2008; 최영아 외, 2009; 김재엽 외, 2012; Chung & Seo, 2007). 특히 심리적 특성 중에서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이하 PTSD로 사용함)에 의한 증상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Carlson & Rosser-Hogan, 1991) 50세 이상 중·고령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탈북 중·고령자의 경우 탈북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PTSD로 인한 어려움이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김미령, 2004; Finnan, 1982;

Aneshensel, 1992; Vries & Heck, 1994). 또한 다른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된 결과(김현경, 2007; 김미자, 2008)와 마찬가지로 50세 이상 중·고령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같은 사회적 지지체계는 남한에서 새로운 역할 재 적응 등으로 이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PTSD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심리사회적 변수를 고려하여 50세 이상 중·고령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연구한 경우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탈북자가 남한 사회에 입국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지원은 이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윤인진, 2000). 탈북자 지원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은 연구들(김치영, 2003; 이금순 외, 2004; 안혜영·이금순, 2007)이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기반 지원까지 논의되고 있다(김선화 외, 2010; 박정란, 2010; 박채순, 2011; 임정빈, 2012).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부지원이 탈북자의 삶, 특히 50세 이상 중·고령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와는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탈북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정도를 살펴보고, 심리사회적 특성 및 정부지원에 대한 인식과 이들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탈북 중·고령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1. 탈북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가. 탈북 중·고령자의 정의

북한의 「년로자 보호법」 제 2조(년로자의 나이, 보호대상)에 의하면 보호대상 년로자를 남자 60세, 여자 55세로 규정하고 있어 북한주민들은 보통 50대가 되면 보호대상 노인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법」과 통계청에서 작성되는 '고령자 통계'는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준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에서 작성하는 북한이탈주민 통계에는 고령자를 50대, 60대로만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상황과 우리나라 주무부처의 통계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5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을 탈북 중·고령자로 명명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나. 탈북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연구

고대 철학에서부터 근대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학문을 통틀어 삶의 만족에 대한 질문은 오랫동안 탐구되어 왔다(김승권 외, 2008; 성보훈·윤선아, 2010; Rim & Putnam, 2010). 삶의 만족도 개념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를 평가하는 개념으로서 사기,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적응, 행복의 개념들과 혼용되어 많은 연구들에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권중돈·조주연, 2000; 정순돌, 2003).

삶의 만족을 경험적으로 연구한 이래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지표는 건강, 수명, 소득, 교육 등의 지표였으나 주관적 차원에서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인식으로, 그리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면서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평가되었다. 즉 이전에는 객관적 지표로 삶의 만족을 평가하였으나, 현실의 객관적인 상황이 같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과거 경험, 현재의 기대와 가치 등에 의해서 다르게 경험되므로 삶의 만족의 '객관적 기준'을 포함하여 자신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느끼는지 주관적 판단을 강조(Diener, 1984)하는 입장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삶의 만족도를 시간적 차원에서 본다면,

삶의 만족도는 현재 생활의 평가와 느낌을 강조하면서도(김미자, 2008),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최성재, 1986; Romney et al.,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탈북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주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현재는 물론 미래의 전망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탈북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는 북한체제에서 압박받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생사를 걸고 탈북한 과거의 경험, 남한 사회에서의 삶의 맥락 안에서 중년기 후반과 노년기를 보내는 현재의 생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총체적으로 나타낸다. 또한 인생에서 중년기와 노년기는 본격적으로 노화단계에 접어든 시기로 신체변화 및 건강으로 인해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들은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다가올 죽음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시간 조망의 변화를 경험한다(양수진, 2012). 또한 이 시기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해 새롭게 재구조화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50세 이상의 탈북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이들의 특성을 묘사한 한 연구(진미정, 2008)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오랜 기간 전체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북한사회에서 형성된 북한주민의 인성구조와 특성을 갖는다고 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개인주의적인 의식이 팽배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 있는 남한 사회 입국 후 이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소가 된다(윤인진, 2000). 또한 북한주민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출신 성분의 벽을 절대로 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는 경향이 있고, 남한과 남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터놓고 이야기 할 대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우택, 2003; 전우택 외, 2006). 이렇듯 노년기에 따르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기존의 북한에서의 가치관이 확고한 탈북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는 다른 연령대와는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2. 탈북 중·고령자 삶의 만족도 관련 요인

탈북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특성과 남한정부의 지원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두었다. 현재까지 탈북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북한이탈주민대상 삶의 만족도 관련 연구들을 참고해서 살펴보면 심리사회적 특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우택, 2000; 김미령, 2004; 전우택, 2005; 엄태완, 2007; 김미자, 2008; 진미정, 2008; 최영아 외, 2009; 김재엽 외, 2012; Chung & Seo, 2007). 특히 심리적 변수 중 PTSD는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김미령, 2004; Finnan, 1982; Aneshensel, 1992; Vries & Heck, 1994). 또한 사회적 특성으로 사회적지지 역시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김현경, 2007; 김미자, 2008).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받고 있는 정부지원은 실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공되는 것이지만, 정부지원이 정말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요인과 정부지원인식을 중심으로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심리사회적 요인

북한이탈주민은 행동주의적 성향과 이분법적 사고, 흑백논리, 과도한 기대수준, 정서적 불안정성, 극도의 생존을 위한 안전욕구(윤여상, 2003),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성격, 공평한 대우에 대한 예민함(전우택·윤덕룡, 2004) 등 고유한 심리적 특성을 갖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굶주림, 구타, 고문 등 북한사회에서의 경험, 탈북과정에서의 경험, 북한과 남한 사회의 커다란 차이 사이에서 적응하면서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탈북자들은 식량부족으로 인한 극심한 굶주림, 가족 및 지인 등의 아사목격, 출신성분으로 인한 고통, 교화소 생활, 성폭력 피해, 강제노동, 도망자로 제3국에서의 생활 등으로 외상(trauma)을 입었으므로,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현경 외, 2008). 난민들에게 있어서 외상에 의한 스트레스 증상은 길게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도 한다(Carlson & Rosser-Hogan, 1991). DSM-IV(1994)에 의하면, 외상은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개인의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 타인의 죽음과 상해·신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의 목격, 가족이나 친지의 예기치 못한 무자비한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및 이들이 경험한 죽음이나 상해의 위협을 알게 되는 것이며, PTSD는 외상적 사건을 경험한 이후 발생한다.

선행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PTSD 유병률은 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홍창형, 2004), 북한이탈주민 중 45.1%가 PTSD 위험군으로 조사되었다(서주연, 2006).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체험은 신체적으로는 불면과 악몽으로 반영되고, 정서적으로는 우울과 무기력감으로 나타나 이들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현경, 2007; 김재엽 외, 2012). 연령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탈북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PTSD 유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홍창형 외, 2005), PTSD 증상수준이 낮을수록 남한 사회 적응 수준이 높았다(Chung & Seo, 2007). 또한 김미자(2008)의 연구에서 탈북 과정의 외상경험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적 지지체계가 약한 특징을 갖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의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김미령, 2004). 사회적 지지는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제공되는 자원(Cohen & Syme, 1985)으로서 이해와 애정, 수용과 자존심 고양 등 사회 정서적 지지를 포함해, 조언과 정보, 경제적 도움 등 구체적인 지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Cattell, 2001; Rim & Putnam, 2010). 특히 낯선 곳에서 정착하는 과정을 겪는 난민과 이주자에게 있어서 주변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Rommy et al., 1994; Fernandez-Ballesteros, 2002; Celso et al., 2003; Johnson & Krueger, 2006). 북한이탈주민들은 가족과 친지, 탈북자, 남한 내 다양한 사회 관계망 속에서 새롭게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대감을 갖으며 상호작용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탈북자의 사회적 지지는 적응(유시연, 2001; 김미령, 2004; 한희선, 2005; 김재엽 외, 2012)과 삶의 만족도(김현경, 2007; 김미자, 2008)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정부지원 인식 요인

한국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지원과 대응은 탈북자의 삶에 많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윤인진, 2000). 한국정부는 탈북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탈북자의 규모와 특성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이들이 남한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주거와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탈북자의 삶에 총체적인 영향을 끼친다. 특히 이러한 정부지원은 양적인 것 못지않게 수혜자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체감되느냐가 중요한데(Finnan, 1982; Cattell, 2001; Fernandez-Ballesteros, 2002), 탈북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책에 대한 인식이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95년부터 98년 사이 북한의 최악의 식량난을 겪은 북한주민들은 북한은 이제 매우 가난한 사회이고, 부정부패가 많고, 당 간부들이 북한 사회의 어려움도 알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전우택 외, 2003). 북한 정권에 대한 실망이 큰 만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된 남한 사회와 정부에 대한 기대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고령자의 경우에는 신체적·심리적 조건이 열악해짐으로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건강과, 심리정서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모든 영역에서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탈북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신체건강 영역, 정신적 영역, 사회관계영역에서 삶의 질 총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민성길 외, 2006) 이러한 예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부지원은 크게 하나원에서의 사회적응단계와 거주지에서의 정착단계로 구분된다. 12주간 동안 이루어지는 하나원에서의 사회적응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안내와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교육, 직업훈련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 거주지로 옮긴 이후에는 정착금지원과 주거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및 사회보장 등의 지원이 정착도우미와 각 보호담당관, 지역사회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같은 포괄적인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은 탈북자들이 남한생활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된다.

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학력, 종교, 건강상태, 경제상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노인의 경우 신체적 건강상태와 경제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정순돌, 2003; 정순돌·이선희, 2011; 정순돌·이현희, 2012). 고령노인일수록, 여성노인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연구들이 있는가 하면(권중돈 외, 2000; 박기남, 2004; 2005; 오영희 외, 2005; 백경숙·권용신, 2007; Laura et al., 2011), 이와는 반대로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허준수, 2004).

한편, 연령이 많아지면서 건강악화 등 생활만족도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경험하는데, 그 중에서도 노화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기능의 저하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의 저하로 인해 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점차 낮아진다(박순미, 2011). 건강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고령자의 건강상태는 삶의 만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이동호, 2010; Rowe & Kahn, 1998). 최근 고령자의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박순미, 2011)에 따르면, 남의 도움이 필요 없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평가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경제상태는 기본적인 생계유지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로 육체적, 심리적 만족감을 증진시켜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소득수준과 같은 객관적 환경 변인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통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Johnson & Krueger, 2006).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역시 삶의 만족은 경제적 생활수준, 건강상태, 북한에서의 교육 정도 등이 관련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김미자, 2008). 또한 탈북자의 삶의 질을 신체적 영역, 정신적 영역, 사회적 영역, 환경적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된 연구(민성길 외, 2006)에서 삶의 질은 미혼으로 탈북했을 때, 현재 배우자가 있을 때, 나이가 적을 때, 수입이 많을 때, 그리고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한국거주기간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제시되기도 하였으나(김미령, 2004), 이와는 반대로 거주기간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김미자, 2008)도 보고되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50세 이상 중·고령 북한이탈주민이다. 조사대상 모집단은 2011년 9월 기준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22,410명 중 50세 이상 2,139명으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탈북 중·고령자에 대한 인적정보(성별, 연령, 거주지, 연락처 등)는 '북한이탈주민 인적정보 DB'(북한인권정보센터)를 활용하여 확보하였다. 조사 대상자 규모는 조사목적과 내용, 조사대상자 거주분포, 그리고 조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50세 이상 탈북 중·고령자 2,139명 중 10% 수준인 215명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거주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층화 추출하였다. 지역별로는 거주인원 비율을 고려하여 수도권(65%), 중부권(12%), 호남권(7%), 영남권(16%)으로 조사대상자를 선별하였고, 남성 26%, 여성 74%, 연령별로 50대 30%와 60대 이상 70%를 조사대상자로 설정하였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년 간 북한이탈주민 면접과 상담 경험이 있는 연구원들이 조사원으로 참여하였다. 조사실시전 조사대상자들로부터 연구참여동의서를 받았으며, 본 조사는 2011년 7월부터 약 3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2. 변수 및 측정도구

가.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인 삶에 관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Diener et al.(1985)이 7점 Likert척도로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를 5점 척도로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 척도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은 '내 인생은 내가 꿈 꾀은 삶의 가깝다', '내 삶의 여건은 매우 좋은 편이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나는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었다', '다시 산다고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고 싶다'로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현재와 미래의 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점수는 1점에서

5점까지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화하여 총점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문항 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84로 나타났다.

나. 심리사회적 변수

북한이탈 중·고령자의 심리사회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PTSD와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 중·고령자의 PTSD 증상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PTSD 증상수준과 PTSD 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한 도구로 강성록(2001)이 개발한 '탈북자 외상척도' 중 외상경험척도를 제외한 외상증상척도만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외상증상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전체 문항은 외상적 사건의 재경험, 회피·마비, 각성반응 증가의 세 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PTSD 증상수준이 높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89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탈북 중·고령자가 비공식적 지지체계인 가족, 친척 및 이웃사람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지지, 물질 또는 도구적지지, 평가적 지지 등 사회적 지지의 다양한 측면들을 평가하기 위해 박지원(1985), 김미령(2004)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나에게 돈을 빌려 줄 사람이 있다', '내가 필요로 하면 잘 곳을 마련해 줄 사람이 있다', '나를 돌봐 줄 사람이 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생기면 들어줄 사람이 있다', '나의 주위 사람들은 언제나 나를 사랑해주고 보살펴준다', '나의 주위 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 때 내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해 준다' 등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지지의 점수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문항수로 나눈 평균점수로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94로 나타났다.

다. 정부지원 인식 변수

정부지원 인식은 정부의 전반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그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이들 정책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정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

지 도움 정도를 묻는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라. 인구사회학적 변수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연령, 성별, 북한학력, 한국거주기간, 도구적 일상생활능력(Instrumental Activity for Daily Living, IADL),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소득, 주관적 경제상태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성별은 남성을 1, 여성을 0으로, 북한학력은 교육년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도구적 일상생활능력은 전화걸기, 장보기 등에서 도움의 필요여부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3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부인의 도움없이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구소득은 월평균 수입액으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경제상태는 주관적인 건강상태평가와 경제상태에 대한 평가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첫째, 50세 이상 탈북 중·고령자의 각 영역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변수별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ANOVA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북한이탈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각 심리사회적 특성, 정부지원인식 등 개별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되었다.

IV. 연구결과

1. 탈북 중·고령자의 특성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북한이탈 중·고령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탈북 중·고령자의 북한에서의 학력은 11년 고등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제도를 반영하여 고등중학교가 46.5%로 가장 많았고, 전문학교 26.5%, 대학교이상 15.3%, 인민학교 6.0% 순이며, 무학도 4.2%로 나타났다. 한국거주기간은 평균 66.6개월로, 3년에서 5년 미만이 27.4%로 가장 많고, 10년 이상 장기거주자도 전체의 8.8%를 차지하였다. 탈북 중·고령자의 IADL은 평균점수가 1.12점(표준편차 0.62점)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생각은 평균 2.21점으로, 전체응답자의 66.0%가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2011 노인실태조사」(44.4%)와 비교해 볼 때, 탈북 중·고령자가 한국 노인에 비해 더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중·고령자 가구당 한 달 평균 총수입은 791,755원이고, 응답자 가구의 82.1%가 100만원 이하의 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의 중·고령자 가구 93.3%가 월 100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 노인실태조사」의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가구소득 2,161,8천원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크다. 경제 만족도는 평균 2.62점(표준편차 0.92점)으로, 탈북 중·고령자의 42.3%가 경제상태에 불만족 하였다. 가구소득은 탈북 중·고령자가 남한 노인에 비해 훨씬 낮으나, 탈북 중·고령자의 만족한다는 비율(15.4%)은 「2011 노인실태조사」의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비율(7.9%)보다 높아 탈북 중·고령자의 만족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변수	항목	빈도(비율)	변수	항목	빈도(비율)
성별	남성	56(26.1)	주관적 건강 상태	매우 건강하지 않다	51(23.7)
	여성	159(73.9)		건강하지 않다	91(42.3)
연령	50대	65(30.2)		보통이다	54(25.1)
	60대 이상	150(69.8)		건강하다	14(6.5)
	평균 64.8세(표준편차 8.05세)			매우 건강하다	5(2.3)
북한 학력	인민학교	13(6.0)		평균 2.21점(표준편차 0.96점)	
	고등중학교	100(46.5)	가구 소득	50만원 이하	76(35.3)
	전문학교	57(26.5)		51만원~100만원 이하	102(47.4)
	대학교이상	33(15.3)		101만원~150만원 이하	20(9.3)
	무학	9(4.2)		151만원~200만원 이하	10(4.7)
		201만원 이상		7(3.3)	
한국 거주 기간	1년 미만	7(3.2)	평균 791,755원(표준편차 563,740원)		
	1~2년 미만	12(5.6)	경제적 만족도	매우 불만족	26(12.1)
	2~3년 미만	23(10.7)		불만족	65(30.2)
	3~5년 미만	59(27.4)		보통	91(42.3)
	5~7년 미만	51(23.7)		만족	30(14.0)
	7~10년 미만	44(20.5)		매우 만족	3(1.4)
	10년 이상	19(8.8)		평균 2.62점(표준편차 0.92점)	
평균 66.6개월(표준편차 34.8개월)					
IADL	평균 1.12점(표준편차 0.62점)				

나. 심리사회적 특성

<표 2>에서 탈북 중·고령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중 먼저 PTSD를 살펴보면, 전체 PTSD 점수는 2.46점(표준편차 0.49점)으로 나타났다. PTSD 중에서 외상적 사건의 재경험(2.48점)과 각성반응(2.47점)이 다소 높았고, 회피마비도 2.43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탈북 중·고령자는 과거 외상적 사건이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재경험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전체 평균점수가 3.28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탈북 중·고령자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탈북 중·고령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단위: 점)

변수	항목	평균	표준편차
PTSD	외상적 사건의 재경험	2.48	0.82
	회피 마비	2.43	0.79
	각성	2.47	0.79
	전체	2.46	0.49
사회적 지지		3.28	0.95

다. 정부지원에 대한 인식

북한이탈주민 고령자의 정부지원에 대한 인식 중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44.2%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3.29점에 표준편차(0.97점)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중·고령자의 40.9%는 정착금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만족하고 있으며, 만족도는 평균 3.32점(표준편차 0.86점)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이 지역사회정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수(52.5%)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으며, 평균점수는 3.56점으로 보통이상의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탈북 중·고령자들이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보다 이들 정책이 실제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표 3. 북한이탈 중·고령자의 정부지원영역 특성

(단위: 명, %)

변수	항목	빈도 (비율)	변수	항목	빈도 (비율)	변수	항목	빈도 (비율)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 인지도	전혀 알지 못함	10(4.7)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 만족도	매우 불만족	4(1.9)	북한 이탈 주민 지원정책 지역사회 정착 도움정도	전혀 도움이 안됨	2(0.9)
	알지 못함	31(14.4)		불만족	28(13.0)		도움이 안됨	13(6.0)
	보통	79(36.7)		보통	95(44.2)		보통	87(40.5)
	조금 알	77(35.8)		만족	72(33.5)		도움이 됨	88(40.9)
	매우 잘 알	18(8.4)		매우만족	16(7.4)		매우 도움이 됨	25(11.6)
	M 3.29점(SD 0.97점)			M 3.32점(SD 0.86점)			M 3.56점(SD 0.81점)	

2. 삶의 만족도

<표 4>에서 탈북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3.27점(표준편차 0.83)으로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같은 척도를 사용한 여성 결혼이민자 삶의 만족도 평균 3.05점(김연수, 2012)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시 산다고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고 싶다'가 평균 3.42점으로 가장 높았고, '내 인생은 내가 꿈 꾀은 삶에 가깝다'가 가장 낮은 3.13점으로 나타났다.

표 4. 탈북 중·고령자의 문항별 삶의 만족도

(단위: 점)

항목	평균	표준편차
내 인생은 내가 꿈 꾀은 삶에 가깝다	3.13	0.99
내 삶의 여건은 매우 좋은 편이다	3.24	1.00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3.34	1.01
나는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었다	3.20	1.04
다시 산다고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고 싶다	3.42	1.30
전체	3.27	0.83

다음으로 <표 5>에서 북한이탈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주요 변인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50대의 경우(3.18점)보다 60대 이상(3.30점)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성별로는 여성(3.31점)이 남성(3.14점)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 그러나 두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이상(3.45점)과 무학(3.44점)이 높았으며, 인민학교(2.91점), 고등중학교(3.25점), 전문학교(3.27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2년 이상~3년 미만(3.41점)의 경우가 가장 높았고, 1년 미만(3.0점)이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IADL은 점수가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151만원 이상(3.55점) 그룹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50만원 이하(3.30점)도 보통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들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는 않았다.

표 5. 주요변인별 탈북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단위: 명, 점)

변인	항목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 t
연령	50대	65	3.18	.81	.91
	60대 이상	150	3.30	.84	
성별	남성	56	3.14	.85	1.90
	여성	159	3.31	.82	
북한 학력	무학	10	3.44	.92	1.11
	인민학교	13	2.91	1.04	
	고등중학교	100	3.25	.86	
	전문학교	57	3.27	.71	
한국 거주기간	1년 미만	7	3.00	.91	.37
	1~2년 미만	12	3.28	1.02	
	2~3년 미만	23	3.41	.83	
	3~5년 미만	59	3.31	.84	
	5~7년 미만	51	3.20	.80	
	7~10년 미만	44	3.30	.90	
	10년 이상	19	3.17	.63	
IADL	10~19점	205	3.27	.85	-.06
	20~24점	9	3.18	1.02	
	25~30점	1	2.80	0	
가구소득	50만원 이하	76	3.30	.84	.09
	51만원~100만원	102	3.21	.85	
	101만원~150만원	20	3.19	.83	
	151만원 이상	17	3.55	.61	

3.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탈북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 수준과 심리사회적 특성 및 정부지원 인식이 각각, 또는 결합요인에 따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참조).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대한 검증 결과, 연구 모형에 투입된 변인들간 상관관계는 -.14 ~ .25, VIF 값은 1.09 ~ 1.53, 공차한계는 .68~.92 범위로 독립변인들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첫 번째 모델에서 먼저 연령, 성별, 북한 학력, 한국 거주기간, IADL, 주관적 건강, 월가구 소득, 경제적 만족도를 투입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영역의 변인들은 삶의 만족의 13.3%를 설명하였으며, 이 모델에서는 성별($\beta=-.153$, $p<.05$)과, 북한학력($\beta=.146$, $p<.05$), 주관적 건강상태($\beta=.157$, $p<.05$), 경제 만족도($\beta=.270$, $p<.001$)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탈북 중·고령자에 대한 본 연구에서 연령과 한국거주기간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기간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일반 탈북자대상 연구(김미령, 2007)와는 차별적인 결과를 보였다. 또한 IADL 및 가구소득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이 같은 결과는 객관적인 지표보다 주관적인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모델은 첫 번째 모델에 심리사회적 특성 변수로 PTSD와 사회적 지지를 추가하였는데, 이 부분이 추가됨으로써 설명력은 4.6% 증가하여 전체 설명력은 17.9%로 나타났다. 따라서 탈북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심리사회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다른 변인은 영향을 주지 않고 경제적인 만족도가 증가할수록($\beta=.248$, $p<.001$), 사회적 지지가 증가할수록($\beta=.198$, $p<.01$)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여기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심리사회적 특성만 고려했을 때, 탈북 중·고령자에게는 재정 상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와 함께, 가족, 친척 및 이웃사람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정보적지지 등 사회적지지 변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사회, 심리사회에 정부지원 인식 변인을 추가한 마지막 모델에서 이 변수들은 탈북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의 26.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영역(4.6%)을 추가했을 때 보다 정부지원에 대한 인식이 추가됨으로 8.9%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탈북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에 정부지원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영역의 변수가 투입되었을 때, 북한에서의 학력이 높을수록($\beta=.138$, $p<.05$), 경제적 만족도가 높을수록($\beta=.168$, $p<.05$), PTSD가 낮을수록($\beta=-.151$, $p<.05$),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beta=.159$, $p<.05$), 정부지원이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인식할수록($\beta=.228$, $p<.01$)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표 6. 탈북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B	β	B	β	B	β
인구사회적 특성	연령	.011	.111	.005	.049	.001	.006
	성별	-.290	-.153*	-.193	-.102	-.188	-.099
	북한학력	.124	.146*	.097	.115	.116	.138*
	한국거주기간	.000	.012	.000	-.029	.000	-.034
	IADL	-.007	-.025	-.003	-.010	.003	.010
	주관적건강	.137	.157*	.064	.073	.041	.047
	월가구소득	1.619E-7	.110	7.249E-8	.049	7.777E-8	.053
심리사회적 특성	주관적경제	.245	.270***	.225	.248***	.153	.168*
	PTSD			-.227	-.133	-.256	-.151*
	사회적지지			.174	.198**	.140	.159*
정부지원 인식	정책인지도					.040	.047
	정책만족도					.125	.128
	정책도움정도					.234	.228**
R ²		.165		.218		.313	
ΔR^2		.133		.179		.268	
F(p)		5.05(p<.001)		5.62(p<.001)		6.98(p<.001)	

* p<.05; ** p<.01; ***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그 동안 탈북자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탈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삶의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탈북 중·고령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탈북 중·고령자들의 삶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정책도움 인식정도, 사회적 지지, PTSD, 주관적 경제만족도, 북한에서의 학력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논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들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3.27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여성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김연수(2012)의

3.05점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이유를 선행연구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남한사회에서 삶을 선택할 만큼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의지와 힘을 가지고 있다(박민아, 2004). 또한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연구(최영아 외, 2009)에 의하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무모하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줄고, 삶의 불확실성을 견디는 힘이 증가하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차분하고 관조적인 태도로 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설명을 통해 보면 탈북 중·고령자들 역시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경향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한편, 본 연구결과 정부지원인식에서 정책도움정도가 탈북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 실제적인 도움정도를 체감하고 인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된 차원의 두 가지 측면을 시사한다. 먼저 탈북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지원 측면의 내용에 대한 것으로, 지원을 하되 보다 이러한 지원이 지역사회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또한 도움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정착금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과 같은 주거와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이 남한사회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탈북 중·고령자가 인식하도록 이들의 욕구에 맞추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맞춤형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와 같이 탈북 중·고령자의 지원도 맞춤형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도움정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남한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이나 지역사회에서 탈북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담당관 및 사회복지사 등의 개입이 보다 지역사회정착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질 필요성을 시사한다. 두 번째는 탈북 중·고령자 자신이 정부지원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적정하게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자들은 배급사회에서 산 경험 뿐 아니라, 북한에서 '공화국 영웅'이 되면, 북한 정부가 모든 혜택을 준다는 것을 들어, 남한에 오면 남한 정부가 자신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전우택, 2000). 이러한 사고는 정부지원을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의존하는 요인이 되고, 과도한 기대는 정부지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므로, 탈북 중·고령자들이 합리적인 기대와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가 탈북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므로 이들이 친구 및 동료관계, 지역사회 다양한 사회공동체를 원만히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체계를 만들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에서의 삶의 터전과 친지, 이웃 등과 헤어져 남한사회에서 아무런 지지체계가 없이 정착해야 하는 이들 탈북 중·고령자들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지지체계의 형성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이 없이 혈혈단신으로 탈북하였다가 가족이 다시 만나는 일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그동안 소원했던 가족간의 관계가 서로에 대한 애정과 지지의 관계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지지체계의 재구조화에 대한 개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와 언론, 지역사회 지원체계 등 탈북 중·고령자를 둘러싼 다양한 체계들이 이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먼저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변 체계가 탈북 중·고령자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은 다시 이들이 그들의 고통과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Veronese et al.(2012)은 난민캠프 생활자들의 행복을 연구하면서 난민들의 긍정성과 삶의 만족을 높이는 것은 사회적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도록 했을 때임을 연구에서 보여주었다. 이렇듯 탈북자의 고통에 대한 상호 공감 속에서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탈북자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중간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PTSD가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김미자, 2008; Chung & Seo, 2007)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탈북 중·고령자들도 다른 연령대의 북한이탈주민과 마찬가지로 PTSD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탈북 중·고령자의 PTSD에 대해 남한 입국 직후 및 주거지 정착 이후 과정에서 정확한 사정과 치료, 위기개입 시스템 등 이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나아가 위기로 인해 근본적인 가치와 신념에 도전을 받고, 역할변화로 인해 대부분 부정적 경험을 하지만, 이러한 고통을 통해 폭넓은 관점, 새로운 대처기술들을 개발하는 '외상경험 후 심리적 성장'(김현경 외, 2008)에 도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객관적인 건강과 경제상태가 아니라, 주관적 건강과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고령 탈북자들의 삶의 만족을 높이는 문제가 경제적 자립이나 건강으로 단순하게 접근하거나 인식의 전환 없이 양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탈북자는 북한에서의

극심한 기근과 붕괴된 의료체제로 탈북 후 3국에서의 험난한 도피 경험으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다(한인영·이소래, 2002; 윤인진, 2005; 이요한, 2011). 따라서 취약한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는 물론이고, 심리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러한 접근은 경제적인 측면도 해당되는데, 본 연구에서 고령 탈북자의 가구당 한 달 평균 총수입은 791,755 원으로 경제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목적으로 탈북한 경우 남한에서의 생활에 실망을 느끼기 쉽고(김미령, 2004), 남한 사람 수준의 경제적 생활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로 인한 상대적 빈곤은 경제적인 만족을 감소시킨다(Cattell, 2001). 따라서 탈북 중·고령자의 소득보장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포함하여, 경제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식전환을 위한 개입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탈북 중·고령자들에게 다양한 스트레스가 존재함에도 본 연구에서는 PTSD에만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는 북한사회와는 다른 남한사회의 적응을 위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생활사에서 경험하는 다른 스트레스의 종류에도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요인도 사회적 지지에 국한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중·고령자의 가족유형이나 배우자 및 가족관계, 자녀의 부모부양 등이 탈북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순들은 미국 Univ. of Texas of Austin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의 심리사회적 안녕, 노인가족, 사례관리이며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재난약자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chung@ewha.ac.kr)

박지혜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K21 플러스 사업단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북한, 여성, 가족, 사회복지 행정이다. (E-mail: jihaepark@ewha.ac.kr)

참고문헌

- 강성록(2001). 탈북자의 외상 척도 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심리학과, 연세대학교, 서울.
- 권중돈, 조주연(2000). 위험군 노인집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75-81.
- 김미령(2004). 탈북자의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pp.507-532.
- 김미령(2007). 북한이탈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4(3), pp.19-39.
- 김미자(2008). 북한이탈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평택대학교, 평택.
- 김선화, 윤여상, 허영철(2010).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지원 활성화 방안.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김승권, 장영식, 조홍식, 차명숙(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연수(2012). 여성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8, pp.229-256.
- 김재엽, 최지현, 유원정(2012). PTSD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 사회적 교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4), pp.343-367.
- 김치영(200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정책과 민간단체 대응전략, 통일전략, 3(2), pp.63-95.
- 김현경(2007). 난민으로서의 새터민의 외상(trauma) 회복 경험에 대한 현상학 연구.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김현경, 엄진섭, 전우택(2008).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경험 이후 심리적 성장. 사회복지연구, 39, pp.29-56.
- 민성길, 전우택, 김동기(2006). 탈북자의 남한에서의 삶의 질. 신경정신의학, 45(3), pp.269-275.
- 박기남(2004).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차이. 한국노년학, 24(3), pp.13-29.
- 박기남(2005). 성별·지역별 특성에 따른 노인의 삶의 만족도 연구. 여성연구, 69, pp.5-34.
- 박민아(2004).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분석 - 하나원 교육생과 사회 배출자 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행정학과, 한양대학교, 서울.

- 박순미(2011).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3, pp.305-332.
- 박정란(2010). 탈북자 지원체계의 쟁점과 발전 방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9월, pp.50-77.
- 박채순(2011).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유입과 적응 실태 연구: 서울시 노원구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5(2), pp.63-88.
- 백경숙, 권용신(2007). 노년기의 경제활동과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연구. 노인복지연구, 35, pp.87-105.
- 서주연(2006).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성보훈, 윤선아(2010). 행복의 정의와 발달단계별 결정요인. 뇌교육연구, 9(6), pp.103-134.
- 안혜영, 이금순(200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분석. 통일정책연구, 16(2), pp.145-171.
- 양수진(2012). 발달에 따른 생애목표 변화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교육학과, 연세대학교, 서울.
- 오영희, 석재은, 권중돈, 김정석, 박영란, 임정기(2005).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여성·농어촌·독거노인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시연(200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가톨릭대학교, 서울.
- 윤여상(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와 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 윤인진(2000). 탈북자문제의 실태와 분석: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모델. 통일논총. 18, pp.3-32.
- 윤인진(2005).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사회적응. 2005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자료집, 2005. 6, 서울: 한국사회학, pp.21-26.
- 엄태완(2007).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위기대처 향상 전략: 난민과 이주민 모델의 적용을 통하여. 통일정책연구, 16(2), pp.173-197.
- 이금순, 최의철, 임순희, 김수암, 이석, 안혜영 외(2004).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 이동호(2010).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0(1), pp.93-108.

- 이요한(2011).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 건강상태비교. 석사학위논문, 보건대학원, 고려대학교, 서울.
- 이철우(2013). 북한이탈중년남성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사회문화인론전공, 북한대학원대학교, 서울.
- 임정빈(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및 이해관계자 분석. 한국정책연구, 12(2), pp.249-272
- 전우택, 유시은, 조영아, 홍창형, 엄진섭, 서승원(2006).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3년간 사회의식 변화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추적연구. 신경정신의학, 45(3), pp.252-268.
- 전우택(2005). 통일 연구에 있어 사회정신의학 영역. 통일연구, 9(2), pp.37-52.
- 전우택, 윤덕룡(2004).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이 경제적 자생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통일부.
- 전우택, 홍창형, 엄진섭(2003). 탈북자를 통하여 본 북한주민 의식 조사. 신경정신의학, 42(5), pp.631-643.
- 전우택(2000).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과 심리갈등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엄 자료집, pp.67-91.
- 정순돌(2003). 저소득 노인의 가족동거여부와 삶의 만족도. 한국가족복지학, 11, pp.57-79.
- 정순돌, 이선희(2011). 노인 삶의 만족도 변화. 한국노년학, 31(4), pp.1229-1246.
- 정순돌, 이현희(2012). 베이비붐세대의 삶의 만족도 : 1998년과 2008년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55, pp.105-132.
- 진미정(2008). 탈북자의 가치관 변화와 사회문화적 적응 및 만족도: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5(1), pp.139-157.
- 최성재(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49, pp.233-256.
- 최영아, 이주용, 김정규(2009). 남성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심리적 적응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통일정책연구, 18(2), pp.215-248.
- 한인영, 이소래(2002). 북한이탈주민의 이주형태 및 성별에 따른 건강관련 특성 비교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 pp.121-142.
- 한희선(2005).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지지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대학원, 한림대학교, 춘천.

- 홍창형(2004).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3년 추적연구. 석사학위논문, 의학대학원, 연세대학교, 서울.
- 홍창형, 전우택, 이창호, 김동기, 한무영, 민성길(2005). 북한이탈주민들의 외상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의 관계. *신경정신의학*, 44(6), pp.714-720.
- 허준수(2004). 지역사회거주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4, pp.127-151.
- Amit, K. (2010).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immigrants from western countries and from the FSU in Isra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96, pp.515-534.
- Aneshensel, C. S. (1992). Social Stress: Theory and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18, pp.15-38.
- Carlson, EB., Rosser-Hogan, C. (1991). Trauma experiences, posttraumatic stress, dissociation, and depression in Cambodian refugee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8(11), pp.1548-1551.
- Cattell, V. (2001). Poor people, poor places, and poor health: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networks and social capital. *Social science & medicine*, 52(10), pp.1501-1516.
- Celso, B. G., Eberner, D. J., Burkhead, E. J. (2003). Humor coping, health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residing in assisted living facilities. *Aging & Mental Health*, 7(6), pp.438-445.
- Chung, S., Seo, J. Y. (2007). A Study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ir Social Adjustment in South Korea. *Journal of Loss and Trauma*. 12(4), pp.365-382.
- Cohen, S., Syme, S. L. (1985).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pp. 3-22). In Sheldon Cohen, S. Leonard Syme(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New York: John Wiley & Sons.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pp.542-575.
- Diener E., Emmons, A. R., Larsen R. J.,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pp.72-75.
- Diener E., Suh, E. M., Lucas, R. E.,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pp.276-302.
- Fernandez-Ballesteros, R. (2002).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among older people in Spain. *Journal of social issue*, 58(4), pp.645-659.
- Finnan, C. R. (1982). Community influences on the occupational adaption of Vietnamese refugees. *Anthropological Quarterly*, 55(3), pp.161-169.
- Johnson, W., Krueger, R. F. (2006). How money buys happiness: Genetic and environmental process linking finance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4), pp.680-691.
- Laura L. C., T. Bulent., S. Susanne., R. Nilam., E. H. Hal., S. L. Gregory., G. R., B. Kathryn P., N. John R. (2011). Emotional experience improves with age: Evidence based on over 10 years of experience sampling. *Psychology and Aging*, 26(1), pp.21-33.
- Rim, C., Putnam, R. D. (2010). Religion, social networks, and life satisf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5(6), pp.914-933.
- Romney, D. M., Brown, R. I., Fry, P. S. (1994).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prescriptions for change. *Social indicators Research*, 33, pp.237-272.
- Rowe, J. M., Kahn, R. L. (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 Veronese, G., Castiglioni, M., Tombolani, M., Said, M. (2012). 'My happiness is the refugee camp, my future Palestine': optimism, life satisfaction and perceived happiness in a group of Palestinian children.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26, pp.467-473.
- Vries, J. D., Heck, G. L. (1994). Quality of life and refugee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23(3), pp.57-75.

Relationship between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nd Recognition about Government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Old North Korean Defectors

Chung, Soondool

(Ewha Womans University)

Park, Ji Hae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a)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nd recognition about government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among old North Korean refugees, (b) to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increasing the levels of life satisfaction. North Korean defectors aged 50 and over were sampled using a stratified random sampling method. A total of 215 cases were analyz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In the analysis to find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old North Korean defectors, the level of PTSD symptoms and social support network was determinant for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nd recognition about government support affected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 number of implications for the high life satisfa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South Korean society are presented.

Keywords: Old North Korean Defectors, Life Satisfaction,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Recognition about Government Support